

학습영역	제목	쪽수
개념학습 01강 인문-예술	땅의 윤리	1
개념학습 01강 인문-예술	호락논쟁	3
개념학습 02강 인문-예술	피론주의	5
개념학습 02강 인문-예술	만남의 예술로서 연극이 지닌 특성	7
개념학습 03강 인문-예술	헬름홀츠의 화성 이론	10
적용학습 인문-예술 01	구조주의 언어학과 인류학	14
적용학습 인문-예술 02	숨어 있는 전제와 결론	16
적용학습 인문-예술 03	한양 도성의 공간 조성	19
적용학습 인문-예술 04	카유아의 놀이에 대한 이론	22
적용학습 인문-예술 05	고대 이집트 예술과 건축	25
적용학습 인문-예술 06	개념 미술	27
적용학습 인문-예술 07	아도르노의 음악론과 대중음악 비판	30
적용학습 인문-예술 08	조선의 소원 제도	33
적용학습 인문-예술 09	버클리의 관념론	34
적용학습 인문-예술 10	니체의 예술 철학	37
적용학습 인문-예술 11	오르피즘과 들로네	41
적용학습 인문-예술 12	프래그머티즘	43
실전학습 1회 인문-예술	분청사기의 역사적 전개 과정	46
실전학습 2회 인문-예술	베르그송의 '주의의 전향'과 예술	47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년 고1 6월 -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가)

일반적으로 가치는 반드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반면에, 사실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은 사실과 가치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도 사실과 가치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사실에 강조점을 두는 입장에서는 가치를 사실로써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시도를 하는 철학자들의 의도는 가치 판단에 속하는 윤리적인 명제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구를 정당화해 보려는 것이다. 즉, 윤리의 본질, 혹은 윤리에 대한 학(學)의 성립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를 사실에 환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입장의 철학자들은 '선하다'라는 윤리적인 가치 개념을 '쾌락을 증진시킨다'라는 사실로 설명하려고 한다든가, '옳다'라는 도덕적 개념을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등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정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실로부터 가치나 당위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입장을 보통 '자연주의'라고 부른다. 자연주의는 주로 근대에 들어 인간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가치를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입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떤 철학자들은 규범이나 도덕의 가치들은 결코 사실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직관론자로 불리는 이들은, '선하다'라는 성질은 직관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것이지, '행복하다'든지 '바라고 있다'라는 경험적 사실에 의해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치를 사실에 환원하는 것을 '자연주의적 오류'라 비판한다.

둘째로, 가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사실이 항상 엄격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울러 많은 경우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전혀 없는 별거벗은 사실이 아니라 이미 어떤 가치의 옷을 입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즉, 많은 경우 사실은 가치의 개입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제의 지적인 활동에서는 서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사실의 구조를 인식하며 윤리를 통해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별개의 영역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 인간이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에는 이 두 영역이 서로 맞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1. 위 글의 핵심 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실과 가치는 정의할 수 있는가?
- ② 사실과 가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③ 사실과 가치는 분명하게 구분되는가?
- ④ 사실과 가치는 과학적으로 검증되는가?
- ⑤ 사실과 가치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복잡한 지하철에 할머니 한 분이 타시자 민호는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다.

ㄱ. 민호는 ㉠자리를 양보했다.....사실 판단
 ㄴ. 민호는 ㉡착하다.....가치 판단

- ① ㄱ과 ㄴ은 일반적 견해로 판단한 것이다.
- ② 자연주의의 견해로 보면 ㉡는 ㉠로 환원될 수 있다.
- ③ 직관론자의 견해로 보면 ㉡는 ㉠로 환원될 수 없다.
- ④ 사실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은 ㉡로써 ㉠를 설명하려 한다.
- ⑤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자들은 ㉠에 ㉡의 개입을 전제한다.

3. ㉠의 '만'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아무래도 나는 너만 못한 것 같다.
- ②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가질 수 있다.
- ③ 이 창문은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게 되어 있다.
- ④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 ⑤ 제가 자꾸만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4.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실과 가치는 도덕과 규범의 문제이기 때문에
- ② 사실과 가치는 결합되어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③ 사실과 가치의 판단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 ④ 사실과 가치는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 ⑤ 사실과 가치는 직관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설} 1쪽
 {해제 존재 X}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년 고3 3월 - 덕의 상실)

개인적 자유주의자는 개인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자유로운 선택과 합의에 의해서만 자신을 강제하는 도덕적 의무를 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다른 사람의 행위나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데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는 공동체적 도덕의식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공동체주의자의 한 사람인 맥킨타이어는 현대 사회가 개인적 자유주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현대의 도덕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학을 거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학의 ㉡복권을 통해 개인적 자유주의를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목적론적 윤리학에서는 최고 선(善)인 행복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덕(德)을 그 선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덕은 선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선을 구성하는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덕이 실천 활동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실천은 그 활동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이 그 활동을 통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활동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실현하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의 연관성이 없을 때는 덕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맥킨타이어는 실천에서 공동체성이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본다.

그렇다면 실천에서 왜 공동체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맥킨타이어는 삶을 ‘이야기’ ㉣양식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개인의 삶은 어느 한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 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탄생, 삶, 죽음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 속에 존재한다. 개인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며, 그가 속한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상호 작용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맥킨타이어는 개인적 자유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공동체적 도덕의식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맥킨타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공동체에서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판단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도 있다.

5. 위 글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 자유주의자들의 생각 ①

▼

맥킨타이어의 주장

○ 공동체주의와 개인적 자유주의의 관계 ②
 ○ 덕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 행위 ③
 ○ 실천의 과정에서 공동체성이 중요한 이유 ④

▼

맥킨타이어의 주장이 갖는 의의와 한계 ⑤

① ② ③ ④ ⑤

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맥킨타이어는 삶이 한 편의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했다.
- ② 개인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선택과 합의를 중시한다.
- ③ 맥킨타이어는 선의 실현과 덕의 획득은 항상 일치한다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선을 구성하는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 ⑤ 맥킨타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

7. ‘맥킨타이어’의 입장에서 <보기>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라우 독일 대통령은 2000년에 있는 이스라엘 국회 연설에서,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독일인이 한 일을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며 사과했다.

- ① 개인과 공동체가 만들어 온 ‘이야기’가 반복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독일 대통령은 공동체로서의 독일과 개인으로서의 독일인을 구분하고 있군.
- ③ 독일 대통령은 ‘덕’의 획득을 위해 이스라엘 국민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군.
- ④ 독일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행동이라 볼 수 있군.
- ⑤ 개인의 도덕적 의무와 자발적인 선택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군.

8.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
- ② ㉡: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
- ③ ㉢: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음.
- ④ ㉣: 뛰어난 식견이나 건전한 판단.
- ⑤ ㉤: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해설} 1~2쪽
 {해제 존재 X}

정답 및 해설

• 인문 · 예술 •

정답

1	③	2	④	3	②	4	②	5	②
6	③	7	④	8	④	9	②	10	③
11	④	12	⑤	13	③	14	⑤	15	④
16	③	17	②	18	④	19	⑤	20	③
21	⑤	22	⑤	23	②	24	②	25	③
26	③	27	⑤	28	③	29	⑤	30	④
31	②	32	①	33	③	34	⑤	35	①
36	③	37	④	38	⑤	39	해설	40	해설
41	해설	42	①	43	③	44	④	45	④
46	④	47	⑤	48	③	49	①	50	④
51	④	52	①	53	해설	54	해설	55	⑤
56	②	57	①	58	②	59	①	60	④
61	②	62	⑤	63	②	64	①	65	①
66	①	67	①	68	⑤	69	⑤	70	②
71	②	72	①	73	③	74	③	75	①
76	③	77	③	78	③	79	④	80	②
81	③	82	①	83	⑤	84	③	85	①
86	①	87	②	88	②	89	③	90	①
91	④	92	④	93	③	94	⑤	95	①
96	②	97	④	98	③	99	②	100	①
101	②	102	②	103	④	104	③	105	③
106	②	107	①	108	①	109	⑤	110	③
111	④	112	④	113	②	114	③	115	③
116	⑤	117	④	118	③	119	③	120	①
121	⑤	122	②	123	③	124	③	125	④
126	④	127	⑤	128	③	129	④	130	⑤
131	④	132		133		134		135	

해설

1. [출제의도] 핵심 논제 파악하기

첫째 단락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과 가치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 [출제의도] 내용 파악 및 적용하기

둘째 단락에서, 사실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은 사실을 가치로써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사실로써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은 첫째 단락, ②는 둘째 단락 중간, ③은 셋째 단락 중간, ⑤는 넷째 단락 끝부분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보조사의 쓰임 이해하기

㉠의 ‘만’은 ‘오로지, 오직, 단지’의 의미로 쓰인 보조사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은 ‘~에 비하여’의 의미로, ③은 ‘반드시, 늘’의 의미로, ④는 ‘마는’의 의미로, ⑤는 ‘행위나 상태가 지속됨’의 의미로 쓰였다.

4. [출제의도] 내용의 근거 찾아내기

마지막 단락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서, ‘사실과 가치를 판단할 때,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실제의 지적 활동에서는 서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 ‘사실과 가치를 판단할 때, 논리적으로는 구분되는 별개의 영역이지만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는 두 영역이 서로 맞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5. [출제의도]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에서는 개인적 자유주의자의 도덕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맥킨타이어가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학의 주요 개념과 그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②는 잘못된 내용이다.

6.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세 번째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맥킨타이어는 활동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이 활동을 통해 실현되더라도 그 활동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의 연관성이 없을 때에는 덕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므로 선의 실현과 덕의 획득이 항상 일치한다고 진술된 ③은 잘못된 내용이다.

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개인의 행위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개인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처럼 이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며 공동체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보기>에서 독일 대통령은 사죄라는 행위를 통해 이야기와 같은 자신의 삶을 이어갔으며, 독일인과 이스라엘인과 상호 작용하며 독일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역사를 써 나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8.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야기 양식’의 문맥에 쓰인 ‘양식(樣式)’의 올바른 사전적 의미는 “일

정한 모양이나 형식.”이다. ④는 “아무 데나 침을 빨는 것은 양식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문맥에서 쓰인 ‘양식(良識)’의 사전적 의미이다.